

있도록 해야한다. '여성문제 연구회'와 같은 포괄적이며 관심을 유도하기 힘든 주제가 아닌, 명확한 영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새내기들이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이라고 생각해보았던 주제를 선택해야한다. 예를 들면 여성기행동아리 정도 제격일 수 있겠다.

둘째, 대중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자기활동을 잘 잡아야 한다. 대중과 함께 하는 활동의 내용은 학습했던 것은 발표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학습은 내 부적으로 단련시키는 사업이고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문화에 관심을 돌리는 것에 소모임이 선두에 있어야한다.

특히 새내기들의 정서와 의지에 맞게 사업하기 위해 새내기들이(소모임 뿐만 아니라 전체 새내기들)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새내기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방식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아주 많은 학우들이 아니라해도 일정한 대중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것으로 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과 형식일 때 소모임의 새내기들도 그것에 매력을 느낄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높여주어야 한다.

3)사상운동

핵심적으로 두가지이다.

무엇보다 실력가,전문가가 되어야 할 일꾼들의 학습수준이 너무나도 낮다. 자기정책력이 부족하고 이전의 여학생운동을 답습하고 있는데는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특히 여성학에 대한 학습과 대학실정에 맞는 토론,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색을 강화해야한다. 이렇게 학습할 때만이 현재 여학생운동의 진부함을 벗을 수 있으며 여학우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할수 있음을, 그 절박성을 일꾼 모두가 가지고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수준에 대한 사상교양의 내용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2. 전여대협 상층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1)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우선 여성정세에 대한 정세분석이 미흡하며 여성정세 분석과 투쟁과제 도출에 있어 아직 위안부,기지촌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식적으로 분석 및 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대생의 처지에서 출발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이라는 전략에 있어 주변고리일 뿐이다. 그리고 정세전망을 비롯하여 상당부분 한총련 사업계획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낳고 있다.

민을 하고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총화되지 못하며, 여러 단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즉, 개별적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여대협 간부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전여대협 간부들이 단위일꾼들에 대한 총화의 중심과 방도에 대한 재고를 통해 사람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위의 핵심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자의 활동을 총화하고 대표자의 신념과 역할을 높여갈수 있도록 대표자를 만나고 보좌하는 것을 중심으로 총화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여대협 간부들이 모든 학교를 그렇게 지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위 대표자분들과 지도 및 하방 활동에 대한 토론과 협의속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다. 방도적 측면은 핵심적으로 조직사상대중운동에 대한 핵심총화대학이나 **대학과 같은 것이 고민이 될 수 있겠으나 이후 더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3. 전여대협에 대한 우리대학의 관점과 자세에 대한 평가

기간 여리고민들과 문제인식을 가져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이후 전여대협 혁신의 문제를 실천적 모범으로서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소극성을 탈피하여 한

4. 간부추천에 대해-대학 추천서와 간부결의서로 대신함.

부경여대협

1. 부경여대협 건설에 대한 상

부경지역에서 여학생운동을 총화하고 책임지는 단위가 부재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부경지역의 많은